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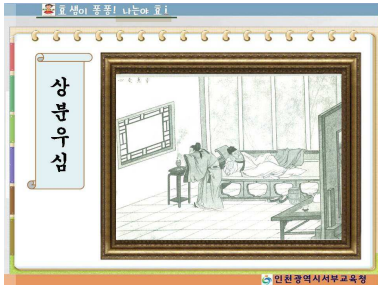



그림으로 보는 중국의 효 이야기

④ 상분우심(嘗糞憂心)

- 변을 맛보며 근심하다.



활동유형	이야기나누기	활동수준	공통수준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효와 관련된 그림 보고 그 의미를 안다. ■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찾아보고 해 본다. 		
교육과정 관련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생활영역-가족과 함께 생활하기-가족과 협력하기 ■ 언어생활영역-말하기-바른 태도로 말하기 		
활동자료 (CD에 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분우심’ 그림 PPT  • 활동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활동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께서 아프셨던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나 엄마가 아프셨던 경험을 이야기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나 엄마가 아프셔서 누워 계셨던 적이 있니? - 어디가 아프셨니? 그 때의 기분은 어땠니? ▶ ‘상분우심’과 관련된 그림(그림 PPT)을 보여준 후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상황의 그림인지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속은 어디니? - 그림에 누가 나오니? 둘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 - 왜 아버지는 누워계실까? - 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 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 그림과 관련된 효도 이야기를 들려준다.

▶ 효도 이야기를 듣고 난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 이야기를 듣고 난 느낌이 어떠니?
- 너희들이 만약 유검루라면 어떻게 했을까?
- 만약 부모님께서 아프실 때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p>활동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을 보고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는가? ■ 그림 속에서 유검루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아는가?
<p>확장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슨 말을 했을까?’ 활동지에 그림 속 주인공이 무슨 말을 하면서 향을 피워 제를 지냈는지 생각해보고 적어본다.
<p>중국의 24명 효도 이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분우심(嘗糞憂心) - 변을 맛보며 근심하다. <p>중국 남북조시대, 남조의 제 나라 신야 지방에 품성이 온화하며 아주 효성스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성은 유이며 이름은 검루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훗날 진사에 합격하였다.</p> <p>그 후 조정에서 그를 잔릉현 현관으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는데, 뜻밖에도 그가 부임한 지 열흘쯤 지난 어느 날 까닭 없이 갑자기 가슴이 격렬하게 뛰면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갑작스레 마음이 불안하며 땀을 흘리는 것은 필시 불길한 징조로써, 집안에 무슨 사고가 일어났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관직을 반납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p> <p>집에 돌아와 보니 과연 그의 부친이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병세를 보러온 의사가 "만일 병세의 경중을 알려면 환자의 변을 맛보아야 됩니다. 만일 변의 맛이 쓰면 그 병은 쉽게 고칠 수 있고 변의 맛이 달면 고치기 어렵습니다."고 하였다. 유검루는 의사의 말을 듣고 곧 아버지의 변을 맛보았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도 변의 맛이 달았으므로 그는 마음속으로 매우 상심하였다. 저녁이 되자 곧 향상을 놓고 향을 피워 제를 지냈다. 그는 머리를 조아려 하늘의 북두칠성을 향해 빌며 아버지의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간구하였다.</p> <p>그 후, 아버지의 병시중을 드는 검루의 지극한 효성이 하늘에 통했는지 서너 달 만에 부친의 병은 완쾌되었고, 검루는 다시 지방의 태수로 부임해 갈 수 있었다. 화려한 부귀공명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이며 더럽고 비천한 것은 곧 인간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유검루는 아버지가 병이 나자 그의 관직까지 마다하였으니 이 또한 얼마나 참된 효심인가!</p>